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五苓散을 투여한 월경통 치험 1례

허주*

서울 마포구 망원동 424-33 경희부부한의원*

A Case Report of Dysmenorrhea treated by Oryeong-san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oo Heo*

Kyunghee booboo Korean medical clinic. 424-33, Mangwon 2-dong, Mapo-gu, Seoul, Korea*

Abstract

Objective : This case report aims to show the effect of Oryeong-san on dysmenorrhea.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Taeyang-byu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Methods : According to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Taeyang-byung and has over-worked since she had been sick. So she took Oryeong-san decoction for 1 month. We evaluated the results of treatment by Visual Analogue Scale and Moos Menstrual Questionnaire.

Results : After taking Oryeong-san decoction for 1 month, the symptoms of patients improved.

Conclusions : This case report sowed and effectiveness of using Oryeong-san according to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on dysmenorrhea.

Key words : Dysmenorrhea, Oryeong-san(五苓散),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Taeyang-byung(大陽病)

* 교신저자 : 허주. 서울 마포구 망원동 424-33 경희부부한의원. Kyunghee booboo Korean medical clinic. 424-33, Mangwon 2-dong, Mapo-gu, Seoul, Korea. E-mail : jjddju@hotmail.com
· 접수 : 2014년 11월 11일 · 수정 : 2014년 11월 25일 · 채택 : 2014년 12월 10일

緒 論

월경통은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의 50%가 경험하는 흔한 부인과적 장애로서, 골반의 기질적 병변의 유무에 따라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뉜다. 원발성 월경통은 골반에 기질적인 병변이 없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월경 시작 몇 시간 전 또는 시작 직후에 발생하여 48~72시간 정도 지속된다. 속발성 월경통은 골반 내에 내재된 질환이 있으면서 주기적인 월경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초경 이후 수 년 뒤에 발생한다. 통증은 월경 시작 1~2주 전에 시작하여 월경이 끝난 후 수일 더 지속된다¹⁾.

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적절한 운동, 금연, 식이요법 조절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비약물적 치료가 있으며, 약물적인 치료로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제제나 COX-2 억제제 등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가 있다. 속발성 월경통의 치료의 경우 환자의 나이와 임신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내과적 치료로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경구 피임약, 프로게스틴, 생식샘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효능제가 있으며, 수술적 치료의 경우 자궁 적출술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월경통은 기존 한의학적 관점으로 痛經, 經行腹痛, 經期腹痛 등의 범주에 속하며, 『東醫寶鑑』에서는 시기에 따라 虛實로 나누어 월경 시의 腹痛은 血滯으로 辨證하여 清熱調血湯이나 四物湯 加味方을 치료법으로 제시하였으며, 월경 후의 腹痛은 虛中有熱로 辨證하여 八物湯 加味方을 제시하였다³⁾.

본 연구의 경우 월경통을 앓고 있는 환자를 『傷寒論』의 辨病診斷體系⁵⁾에 기초하

여 大陽病 五苓散證으로 최종 진단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투여한 결과 유의미한 치료 결과를 관찰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바이다.

證 例

1. 환자명 : 오○○

2. 성별/연령 : 女 / 22

3. 키/몸무게 : 164.1cm / 52.3kg

4. 결혼여부/직업 : 미혼 / 대학생

5. 주소증(c/c) : 월경 시 하복부의 통증 및 요통. 하복부의 통증은 월경 시작 후 1-2일 정도 지속되며, 요통은 월경 시작 하루 전부터 월경 후 2-3일간 지속된다.

6. 발병일(o/s) : 2011년

7. 현병력(history) : 상기 환자는 2011년 6월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받은 후 월경 시작 시 심한 요통 및 복통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증상이 월경 때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8. 가족력 :

1) 고혈압-부

2) 외조모-당뇨

9. 과거력 : 2009년 Herpes 2형

10.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11. 身體 諸般 狀況

Table 1. 참고

12.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

Table 2. 참고

본 학회의 辨病診斷體系⁵⁾에 따라 환자의 六病을 감별 진단하였다. 六病提綱과 條文의 변화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였다.

2) 치료 평가 도구

월경통의 임상증상의 개선 정도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월경통 평가 지표로 반응되는⁶⁾ VAS(Visual Analogue Scale)와 MVRS(Multidimensional Verbal Rating scale) 중 가장 많이 쓰이는 Moos Menstrual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 VAS

무증상을 0점으로, 환자가 느끼는 가장 심한 불편감을 10점으로 하여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수치로 평가하였다.

(2) Moos Menstrual Questionnaire

Fig. 1 참고

Fig 1. Moos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

	0	1	2	3	4	5
통증						
김중턱 저하						
행동 변화						
자율신경계 반응						
수분축적 증상						
부정적 정서증상						

13. 치료경과

1) 경과

Table 2. 참고

2) 평가 지표 변화

Table 3. 및 Table 4. 참고

Table 1. 身體 諸般 狀況

01. 食慾	입맛은 아주 좋은 편이다. 수시로 군것질을 하는 편이다. 스트레스 상황 또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에는 입맛이 떨어져 잘 안 먹게 된다.
02. 消化	잘 되는 편이다.
03. 口部	피곤하면 입 주변에 문제가 생긴다.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수분을 더욱 많이 섭취한다.
04. 汗出	매우 잘 나는 편이다. 긴장하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매우 많이 나는 편이다.
05. 大便	2일에 한 번. 건강한 변을 본다.
06. 小便	2-4회/일. 음수량이 많아도 소변횟수는 많지 않다. 땀으로 다 나가는 느낌이다.
07. 寒熱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코막힘이 생기고, 목이 따갑다. 이때에 종종 기침을 하기도 한다.
08. 頭面	더울 때 얼굴에서 땀이 난다. 그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09. 呼吸	평소에 목에 가래 같은 것이 걸려있는 느낌이 들어서 ‘킁킁’ 하는 소리를 낸다.
10. 胸部	별무
11. 腹部	월경 시작 시에 복통이 심하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속된다.
12. 睡眠	자다가 중간에 깨는 편이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욱 심해진다.
13. 身體	월경 시작 시에 요통이 심하다. 오래 서 있으면 요통이 생긴다. 몸을 많이 쓰는 상황에서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
14. 性慾	별무
15. 스트레스 대응방식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편이다. 잘 울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16. 婦人	2011년 5월 이후 없던 월경통이 생겼다.

Table 2. 辨病診斷 및 治療經過

初診日	2014. 08. 11.
韓醫師 所見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병 당시에는 월경통이 없었던 시절에 비해 몸의 움직임이 훨씬 많아진 시기였으며(脉浮), 환절기에 항상 기침을 동반한 목감기에 걸린다고 하였다(惡寒). 그리고 항상 뒷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한다(頭項強痛). 2) 2011년 5월 경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매우 짜증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지인들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자주 토로하고 우는 모습을 자꾸만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짜증을 내는 과정에서는 커피나 찬 물을 마시고 얼음을 계속해서 먹었다(煩渴). 3) 평소에는 입맛이 좋아 항상 군것질과 수분을 조금씩 섭취하며(胃中乾燥),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매우 잘 나는 편이다(大汗出).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잠에 잘 들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된다(煩不得眠). 4) 긴장 시 혹은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입맛이 떨어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며, 간혹 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傷寒). 긴장하는 상황에서는 손에 땀이 매우 많이 나며, 물을 계속해서 찾는 모습을 보인다(汗出而渴).
辨病 診斷名	㉔ 大陽病
條文 診斷名	<p>㉔71. 大陽病, 發汗後, 大汗出, 胃中乾燥, 煩不得眠, 欲將飲水者, 少少與飲之, 令胃氣和則愈, 若脉浮, 小便不利, 微熱消渴者, 五苓散主之.⁸⁾</p> <p>㉔72. 發汗已, 脉浮數, 煩渴者, 五苓散主之.⁸⁾</p> <p>㉔73. 傷寒, 汗出而渴者, 五苓散主之, 小渴者, 茯苓甘草湯主之.⁸⁾</p>
投與 處方	<p>五苓散 (1일 3회, 1회 120cc 복용)</p> <p>[처방구성 및 1일 용량]⁸⁾</p> <p>茯苓 3g, 豬苓 3g, 澤瀉 5g, 桂葉柄 2g, 白朮 3g</p>
患者 指導法	몸의 움직임을 평소보다 줄이고, 짜증이 날 때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조절할 것을 지시하였다.

再診日	五苓散 복용 15일 후	2014. 08. 27.
治療 經過	1) 월경 시작 시에 요통과 복통이 감소하였다. 2) 손발이 평소에 비해 따뜻해진 느낌이다. 뒷목의 불편함은 여전하다. 3) 손발에서 나는 땀의 빈도가 줄어든 느낌이지만 한 번 땀이 나기 시작하면 여전히 많이 나는 편이다. 물은 여전히 많이 마시는 편이다.	
韓醫師 所見	비교적 빠른 기간에 주소증이 호전되는 것이 관찰되며, 條文의 체반 증상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관찰된다. 주소증은 최근에 앓게 된 것이기 때문에 호전 속도가 비교적 빠른 것으로 보이며, 條文의 체반 증상은 상기 환자의 삶에서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 병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호전 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辨病 診斷名	上同	
條文 診斷名	上同	
投與 處方	上同	
患者 指導法	上同	

再診日	五苓散 복용 30일 후	2014. 09. 15.
治療 經過	1) 개강하여 바쁘게 활동하지만, 이전처럼 손발에 땀이 많이 나지는 않는다. 갈증은 여전히 느끼는 편이다. 2) 소변 횟수가 하루 8회로 증가했다. 3) 손발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다. 4) 뒷목의 불편함에 대한 변화는 잘 못 느낀다.	
韓醫師 所見	주소증의 변화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條文의 체반 증상이 계속 호전되어 환자가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범주로 조절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방화에 비해 개강 후 몸의 움직임이 늘어나 다시 몸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약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辨病 診斷名	上同	
條文 診斷名	上同	
投與 處方	上同	
患者 指導法	上同	

Table 3. 평가지표 변화 (VAS)

날짜	2014. 08. 11.	2014. 09. 15.
월경통의 정도	6.5	1
월경통의 가장 심한 정도	6.5	2.5
일상생활의 전반적 활동	2.5	0.5
통상적인 일 (학교 내 및 외의 일)	2.5	0.5

Table 4. 평가지표 변화 (Moos Menstrual Questionnaire)

날짜	2014. 08. 11.	2014. 09. 15.
통증	3	1
집중력 저하	2	0
행동 변화	0	0
자율신경계 반응	1	0
수분축적 증상	0	0
부정적 정서 증상	3	0

考 察

상기 환자에게 적용된 辨病診斷體系⁵⁾는 『傷寒論』의 六病 提綱을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가 병을 앓아오면서 잘 조절되지 않는 병적인 습관을 六病 提綱을 통해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해당 증상과 주소증과의 연관성을 파악한 후 條文으로써 세부 진단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약을 투여하게 된다.

본 증례의 경우 상기 환자의 월경통이 생긴 시점에서 나타난 생활 습관의 변화를 추적하였으며,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음을 파악하였다.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심하게 분노하였으며, 이러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하여 공감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부산하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脉浮數)이 평소 에 비해 잦아졌고, 결국 몸의 움직임이 발병 시점 전에 비해 확실히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자신이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차가운 음료수를

급하게 마시는 행동(煩渴)을 자주 하였으며, 심지어 상대방의 음료수와 얼음까지 섭취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이와 같이 평소 에 비해 몸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느끼는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大陽病으로 진단을 하였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에서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71번, 72번, 73번 條文을 통해 진단한 후 五苓散을 투여하여 주소증의 개선 및 條文의 증상의 개선을 이끌어내었다.

상기 환자는 五苓散을 복용하면서 주소증인 월경 시작 시 복통 및 요통의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大陽病 提綱 중 惡寒에 해당되는 手足冷症이 점차 완화되었다. 이 외에도 五苓散 條文에 해당되는 제반 증상들이 조절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소변 횟수(小便不利)의 증가, 손발에서 땀이 나는 정도(汗出)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약의 투여 외에도 발병 시점 전에 비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수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월경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고, 이를 조절할 것을 지시하였다. 단순히 약을 투여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내려진 진단에 따라서 평소애 어떤 습관을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진단에 따라 환자에게 제시되는 생활 습관의 교정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예방의학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월경통은 가임기 여성의 대다수가 경험하는 흔한 부인과 질환으로, 골반 내의 기질적 병변의 유무에 따라 원발성, 속발성 골반통으로 분류된다. 월경통에 대한 치료로는 일반적으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호르몬 제제 등이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투여되며, 골반 내 기질적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 침습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²⁾.

월경통과 관련된 한의학계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헌 상 월경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처방들을 환자에게 투여하여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방의 투여를 위한 변증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³⁾⁴⁾⁷⁾.

기존에 연구된 월경통에 관한 증례들은 단순히 월경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제를 투여하여 효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증례의 경우 기존의 연구와 달리 辨病診斷體系를 통해서 월경통의 발병시점을 기준으로 월경통과 함께 나타난 환자의 생활 습관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월경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여 大陽病 五苓散證으로 진단한 후 약을 투여하여 유의한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이는 환자의 문제를 진단할 때 단순히 환자가 진료 시점에 호소하는 증상 뿐만 아니라, 환자가 병을 앓게 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주소증과 어떠한 연관 관계를 맺는지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증례의 경우, 예후와 치료 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提綱과 條文에서 언급된 증상이 호전되는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結 論

1.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따라 월경통 환자에게 大陽病 五苓散을 투여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2.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병적 상황에 놓인 환자의 삶과 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提綱과 條文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參考文獻

1. 대한한방부인과학회. 한방여성의학(하). 의성당. 2012:86-97.
2.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부인과학. 고려의학. 제4판. 2013:133-5.
3. 최가야, 조정훈, 장준복, 이경섭. 桂枝茯苓丸의 생리통 환자에 대한 임상 효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4;17(1):178-186.
4. 장준복, 최윤희, 윤영진, 조정훈, 이경섭. 七製香附丸製劑의 原發性 月經痛에 대한 임상적 효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5;18(1):

- 156-168.
5. 이성준, 임재은. 傷寒論 六經과 條文에 근거한 診斷體系 및 臨床運用. 大韓傷寒金匱醫學會. 2013.
 6. 박정수, 박선주, 김경훈, 김운지, 최형심 등. 한의원에서 사용 가능한 정량적인 월경통 평가지표 개발.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1;24(1):144-161.
 7. 문덕빈, 김미진, 엄윤경, 공복철, 이인신. 女高生 月經痛에 대한 酒煮當歸丸의 효능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5;18(2):83-99.
 8. 이승인. 新古方撰次. 군자출판사. 2012:99.